

Mc.a.8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창립보고대회

• 일시 : 1992. 7. 12 (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종로4가성당 강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화: 867-0516

목 차

- 창립 보고대회 순서
-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공동활동 경과보고
- 규약
- 1992년 사업계획
- 창립선언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창립 보고 대회 순서

제 1 부 : 창립 보고대회

- 대회선언
- 민중의례
- 대표인사
-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 각 지역 대표자 및 임원 소개
- 내빈소개
- 축사
- 창립선언문 낭독

제 2 부 : 나눔의 시간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공동활동 경과

1.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결성

한국여성노동자회 (1987년 창립, 1992년 서울여성노동자회로 개칭)

인천여성노동자회 (1988년 인천 일하는 여성 나눔의집에서
1989년 인천여성노동자회로 창립)

부천여성노동자회 (1989년)

성남여성노동자회 (1989년 성남민주여성회에서 성남여성노동자회로 창립)

부산여성노동자회 (1988년 부산여성노동자의 집에서
1990년 부산여성노동자회로 창립)

광주여성노동자회 (1990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1992년)

2. 공동 활동

(1) 회의 및 구성

1988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인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기독여민회 새터사업부
실무자들이 정기모임을 구성하여 공동사업 진행

1989년: 서울, 인천, 성남, 부천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운동단체대표자회의'
를 구성, 월1회 정기회의,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공동사업 진행

1990년: 부산지역이 대표자회의에 참여, 전국조직에 관한 논의 시작

1991년: 서울, 인천, 부천, 성남, 부산, 광주지역이 '여성노동자회 대표자회의'를
공식 구성하고 상임대표와 상임실무자 선정, 실무회의 구성, 전국조직 준비
논의 진행

1992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참여, 전국조직 준비구체화

(2) 정책 개발

- '여성노동자 임금인상투쟁지침서', 발간 (1988)-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공동 발간

- 여성노동자 임금인상투쟁 과제에 대한 전국 정책간담회 (1989)- 한국여성노동자

회, 인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기독여민회 새터사업부 참여

- 여성노동자 임금인상투쟁의 과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 (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 「직업병과 모성보호, 사례발표회(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실상과 대책」 토론회 (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공동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 여성노동자회 조직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 여성노동자의 집 참여, 전국조직논의 시작
- 「여성노동자와 임금」 책 발간(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회 공동발간
- 「악화되는 여성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및 자료집제작(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회 공동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 자료집제작 (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공동발간
- 「직장탁아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책토론회(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공동주최
-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이후 탁아운동의 방향」 내부정책토론회(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참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대한 대응방안」, 「일본탁아운동」 내부정책토론회(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참여
-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 내부정책토론회 (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참여
- 구사대 폭행 사례수집 및 정리 (1991)
- 「여성노동자회 노동조합 사업과 조직사업」에 관한 내부정책토론회(1992)-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준비위원회 참여
- 「고용보장투쟁의 현황과 과제」 내부정책토론회(1992)-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참여
- 「직장탁아소 추진사업장 간담회」 (1992)-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공동준비

(3)이슈 대응 및 선전활동

- 「차별임금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 선전물제작 (1988)-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공동
- 「여성노동자 임투 소식지」 1, 2, 3호발간(1989)-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민주여성회,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공동
- 「'89년 임금인상투쟁은 가족과 함께!」 선전물제작(1989)-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공동
- 「100주년 기념 노동절! 노동자가족과 함께」 선전물제작(1989)-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공동
- 「상공부의 노동법개정안을 450만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성명서발표 (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성남여성노동자회 공동
- 「올바른 탁아법제정을 촉구하는 한겨례신문 광고(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공동
- 「올바른 탁아법 쟁취하여 평생직장 확보하자」 선전물제작(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광주여성노동자회 공동제작
- 「영유아보육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국회앞 시위(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참여,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
- 「여성노동자 총단결로 올바른 탁아법 쟁취하자」 선전물제작(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공동
-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확보하자」 3.8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만화대자보제작 (1990)-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성남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공동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발표(1991)-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과 공동

-「백골단·전투경찰 해체 및 폭력정권규탄 여성대회」 참여(1991)-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참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가두집회에서 구사대 폭행 폭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노동법개악안을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1991)-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

-「고용불안 가중시키는 시간제노동 확대정책 즉각 중지하라」 전단 배포(1991.11.10 노동자대회) 물벽보 시위, 「직장마다 공단마다 탁아소를 설치하라」 플랜카드 부착-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공동

-「더이상 우리의 딸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지 말라」 권미경양 투신에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1991)-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

-「보사부의 보육시설 확충대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1992)-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와 공동

-「경영자총협회는 여성관련 노동관계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1992)-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집회 공동개최(1990, 1991, 1992)-공동기획, 공동선전물 제작, 공동홍보, 공동주제 등,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각 지역에서 기념 집회 개최

-고 김 경숙열사 추모 묘소참배 공동화(1990, 1991)

(4) 「일하는 여성」 공동제작

1991년 5월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일하는 여성」,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인천여성노동자」, 부산여성노동자회의 「부산여성노동자」, 성남여성노동자회의 「성남여성노동자」를 통합하여 서울, 인천, 부천, 부산, 성남지역의 여성노동자회들의 공동회지 「일하는 여성」을 격월로 공동발간, 공동편집위원회, 기획회의 구성

(5) 교육활동

-「여성문제 토론회」 순회토론회(1988) 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성남민주여성회, 기독여민회 공동주최로 서울, 인천, 성남에서 각 2회

씩 실시

-「여성노동자운동 활동가 수련회」(1988)-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 일하는 여성 나눔의 집, 기독여민회 공동개최
-「전국 노동조합 여성지도자 쎄미나」(1989년 1, 2차, 1990년 3차, 1991년 4차), 3차부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개최

-「여성노동자회 여름수련회」(1991)-한국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참여

(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여성국 지원

-전노협 창립시 강령에 여성관계 조항 설치 제안, 여성국 설치 제안(1990)
-전노협 부부교양교실 지원(1990, 1991)
-전노협 여성국, 여성노동자회 연석 회의(1990)
-전노협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자보 제작지원(1991)
-전노협 여성국 선전지침서 제작 지원(1991)

(7) 전국조직 결성을 위한 준비

1990년 12월 「여성노동자회 조직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실시, 전국조직의 필요성 논의

1991년 9월 대표자회의에서 전국조직 준비에 관한 논의 재개 결정

1991년 10월 여성노동자회 공동활동 및 대표자회의 활동 평가

1991년 11월 전국조직의 필요성 확인

1991년 12월 수도권 대표자 토론

1991년 12월 조직위상, 조직체계 검토

1992년 1월 조직위상, 조직개요, 인선안 검토

1992년 3월 부산여성노동자회와 수도권 대표자 간담회

1992년 4월 마산 여성노동자회와 상임대표, 상임실무자 간담회

1992년 5월 규약안, 조직체계검토, 인선 및 일정논의, 준비위원회 구성

1992년 6월 준비위원회 회의

(8) 기타

-필리핀 여성노동운동가와의 교환프로그램에 참여(1990, 1991)

-아시아지역 여성노동자운동 지도자 회의 참석(1992)

-상임대표, 상임실무자 지역방문 및 교육- 태백, 성남, 광주, 부산, 마산지역 등

규약

제정 1992.7.11

제1장 총 칙

- 1.(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로 한다.
- 2.(사무실)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 3.(목적)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과 권리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민족의 자주화와 사회민주화에 기여한다.
- 4.(사업)
 - (1)각 지역의 사업을 교류하며 통일성을 높이는 사업
 - (2)교육, 선전 사업
 - (3)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여성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사업
 - (4)새로운 지역의 조직 결성 지원 및 개척을 위한 사업
 - (5)국내외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
 - (6)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 및 위상

- 5.(구성)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및 기타 여성노동자운동단체로 구성한다.
- 6.(위상) 각 지역의 활동을 상호교류하여 통일성 및 결합도를 높이고 각 지역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토대로 하여 여성노동자운동의 전국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적인 위상으로 한다.
- 7.(권리)
 - (1)회원단체는 모든 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 (2)회원단체는 월 1회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8.(의무)
 - (1)회원단체는 공동사업을 성실히하고 책임성있게 수행한다.
 - (2)회원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 9.(가입과 탈퇴)
 - (1)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지역 여성노동자회나 기타 여성노동자 운동단체는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가입 및 참관할 수 있다.
 - (2)회원 단체는 해산을 했거나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회의

- 10.(기관)
 - (1)대표자회의
 - (2)특별위원회
 - (3)사무국
- 11.(대표자회의의 성격 및 구성)
 - (1)대표자회의는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년 1회 정기 총회를 열며 월 1회 정기대표자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 대표자회의를 열 수 있다.
 - (2)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일원 및 각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장은 참관할 수 있다.

- 12.(대표자회의의 기능)
 - (1)회칙의 제정 및 개정
 - (2)임원 선출 및 사무국원 구성
 - (3)중요 활동방향 결정 및 사업안 결정
 - (4)예결산에 관한 사항
 - (5)지역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 (6)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기타 중요한 사항
- 13.(대표자회의의 의결) 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 및 임원불신임,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14.(위원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일하는 여성」 편집위원회는 일하는 여성의 편집, 제작을 책임진다.
 - (2)기타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5.(사무국)
 - (1)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 (2)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각부 부장을 둘 수 있다.
 - (3)사무국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행위원회는 대표, 사무국장, 각 지역 전국사업 담당자로 구성한다.
- 16.(국제협력위원) 국제적 자료 및 정보수집과 국제연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그 방면의 전문가인 국제협력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17.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 자문위원 및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 18.(임원구성)
 - (1)대표
 - (2)부대표
 - (3)사무국장
- 19.(임무)
 - (1)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자회의를 주재한다.
 - (2)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대행한다.
 - (3)사무국장은 대표를 보좌하며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 20.(선출) 임원의 선출은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회의에서 한다.
- 21.(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5장 재정

- 22.(재원) 재정은 각 지역 회비와 후원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 한다.
- 23.(회비) 각 지역회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필요시 사업을 위한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6장 부 칙

- 1.(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 2.(운영)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대표자회의 결의로 시행된다.

창립선언문

1992년 사업 계획 (1992년 7월 - 1993년 6월)

- (1) 조직사업
 - 1) 창립총회 및 보고대회
 - 2) 월 1회 대표자회의
 - 3) 지역 방문
 - 4) 수련회
 - 5) 새로운 지역의 조직 결성 지원
- (2) 정책연구사업
 - 1) 일본의 탁아정책 및 운동에 관한 책 발간
 - 2)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사업 및 조직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3) 여성노동 관련자료 및 각 지역 자료수집, 자료목록표 작성 배포
 - 4) 각 지역 교육담당자 간담회
- (3) 교육사업
 - 1) 노동조합여성지도자 쎄미나
 - 2) 여성지도자를 위한 여성학교
 - 3) 각 지역 교육안 모음 및 자료화
- (4) 선전사업
 - 1) 「일하는 여성」발간, 평가회 조직, 각 지역 일여 담당자 조직
 - 2) 「아시아 여성노동자 소식지」 번역 인쇄(년4회)
 - 3) 3·8대회, 김경숙, 송칠순열사추모회
- (5) 여성권의사업
 - 1)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사업
 - 2) 탁아사업
 - 3) 여성고용 불안정 문제에 관한 사업
- (6) 연대사업
 - 1) 전노협 여성국 지원 연대사업
 - 2) 업종 여성국장단 간담회 모색
 - 3) 한국여성단체연합 사업에의 참여
 - 4) 재독한인 여성회, 아시아 여성위원회 등과의 연대사업
 - 5) 지역조직 방법 연구를 위한 일본 및 인도방문

우리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깃발을 높이 들어 자주적·민주적 여성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기원을 펼쳐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987년 이 땅에 최초로 여성노동자운동단체를 결성한 이래, 인천, 부천, 성남, 부산, 광주, 마산창원 각 지역에서 줄기차게 여성노동자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의 노동분할 지배구조를 폭로하고 각종 차별 정책의 철폐와 모성보호, 평생노동권확보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미·기혼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가족을 투쟁에 동참하도록 하여 전 노동자계급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3년에 걸친 지역간의 활동교류, 정책개발, 공동활동, 고용불안정문제에 대한 대응 및 탁아법제정운동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의 통일성과 힘을 배가시켜왔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깨어나 평생·평등노동권확보와 평등사회, 민주사회를 열어가는 당당한 세력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독재권력과 독점자본은 거대하게 전진하고 있는 전 노동자의 해방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87년 이전의 암울했던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 폭압적인 탄압을 다양하게 자행하고 있다.

휴·폐업, 부도, 자본이전, 하청분할, 감원, 집단해고 등으로 최근 조직노동자수가 36만명이나 감소했으며, 또 한편으로 임시직, 일용직, 용역직, 시간제노동, 외국인노동자 유입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리·분열시켜 단결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시도를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지배와 착취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들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한가운데에서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점점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으로, 서비스산업의 최말단으로 내몰려 주변노동력화되고 개별화되어, 노동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각종 권리확보를 위한 투쟁과 조직화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의 조직과 투쟁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날로 격화되는 평생·평등노동권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갈 것이며,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으로 힘 있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조직의 확대 강화를 통해 노동운동의 강화와 사회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의 강화와 통일성을 더욱 높여내야 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
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결성을 천명한다.

이제 오늘을 있게 한 자랑스러운 선배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구의 절반인 여성, 노동계급의 절반인 여성노동자, 인류의 미래를짊어질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위대한 어머니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여성노동자운동의 찬란한 역사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장시간노동철폐와 임금, 모집, 체용, 승진, 승급에서의 남녀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둘째, 모성을 파괴하는 작업환경의 개선과 직업병의 철폐,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각종 모성보호의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세째, 지역·직장탁아소 설치확대와 정부의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제도로서 탁아소가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투쟁한다.

네째, 여성의 고용안정 보장과 기술훈련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다섯째, 직장단위의 조직뿐 아니라 지역에 분산된 미혼·기혼여성의 특성과 작업형태에 따른 다양한 조직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여섯째, 여성노동자 투쟁전선의 확대를 위해 제반 노동조합 조직 및 여성단체와의 연대와 통일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여성운동, 노동운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 우리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

1992. 7. 11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